

서울 초등 방과후, 학교 밖 공공기관·주말까지 넓힌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23개기관 참여 초4~6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키움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AI·코딩·드론 등 미래교육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에 머물렀던 방과후 교육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넓히고, 주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AI·코딩 등 미래교육은 물론 독서·환경·요리·예술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운동네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초1~2학년 대상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초3학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더해 초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공공시설을 활용한 무상 방과후 프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15곳과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7곳, 청소년센터 1곳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는 미래 교

육과 독서·인문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남도서관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펜 과학창작소', 강동도서관은 '강동 어린이 과학 탐험대', 가산도서관은 AI 크리에이터 캠프를 운영한다. 동대문도서관은 '미래상상 AI 창작소', 어린이도서관은 드론 조종 기초반, 용산도서관은 체험형 코딩교실을 진행한다.

독서와 인문학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서대문도서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초록 세상', 송파도서관의 어린이 인문학 워크숍, 고덕평생학습관의 '독서 토론으로 시작하는 생각 글쓰기', 노원평생학습관의 '우리가 그린(Green) 내일의 지구' 등이 운영된다.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원 거점형 키움센터는 요리 프로그램인 '토요 쿠킹! 맛있는 내일터',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레고 코딩 수업을 운영한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미래 진로 체

합인 '메타스티 비자이 진로 클래스'를,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는 '도전! 나도 해리포터', '도전! 나도 과학수사대'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의 신약 개발 연구 체험 키움Lab',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의 밴드 운영 프로그램, 시립 광진청소년센터의 탁구·제과제빵·전자드럼 교실 등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활동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도서관·평생학습관 또는 학교를 통해 진행된다.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은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밖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사교육에 편중된 주말 교육 환경을 완화해 학부모의 교육비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경기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이달 14일까지 27개 전통시장서 진행 수산물 점포 705곳 참여해 규모 확대 국산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등 도내 15개 시군의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곳이 참여한다. 이는 올해 설 명절 기간 환급행사에 참여했던 16개 시장, 524개 점포와 비교해 시장 수는 11곳, 참여 점포는 약 35% 증가한 규모다.

행사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구매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차로 배정된 환급 예산 15억 6천만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매출이 5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물명품과학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역세권 공급 속도

휴먼타운2.0 3곳 특별건축구역 지정 옥인·명륜3가·망우동 건축특례 적용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평역세권에는 2000여 세대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단지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원,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에 대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과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4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2.0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다가

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 필지 단위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 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옥인동 일대는 3만282㎡, 명륜3가 일대는 5만6494㎡, 망우동 일대는 1만4784㎡ 규모다. 구역 내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기준 완화가 적용된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추가로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각종 건축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건축

협정 집중구역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총 2054세대 규모로 공공주택 270세대와 분양주택 1784세대가 공급되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세대 내부의 거주성과 개방감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하고 입주민 여가 공간과 피난 성능도 강화했다.

신평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대규모 역세권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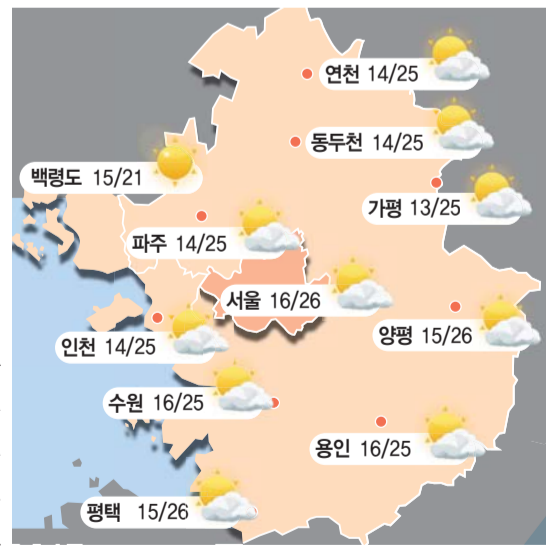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6월 11일 (목)
음력 : 4월 26일

수도권 날씨
16 ~ 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박용승 경희대 경영대학장 UN PRME 자문위원 선임

박용승 경희대 경영대학장(사진)이 유엔 글로벌 콤팩트 산하 책임경영교육 이니셔티브인 PRM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박 학장이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PRM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PRME는 경영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글로벌 경영교육 이니셔티브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선정 2027년부터 2년간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 20만7890㎡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5000만 원(도비 3억7500만 원·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풍덕천, 새로운 매력에 스며들다!!"를 비전으로 주민과 상인,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체류형 생활문화 상권 조성에 나선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를 발굴하고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인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은 수지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수지구 청역과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흥·숙박시설이 밀집해 있고 보행환경과 상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조직화와 상권 운영 역량 강화, 특화가로 조성 기반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美·이란 군사충돌에도... 밴스 "합의 매우 근접해"
▲예멘 장기 정전사태 향의 시위 중 보안군 발포로 1명 죽고 여러 명 부상 /사진 뉴시스

▲우주로 확대되는 중-러 협력... 中, 달 뒷면 채취 샘플 공유
▲TSMC "인플레이에 비용 올랐다"... 반도체 칩 가격 인상 가능성 시사

▲中 "시진핑 방북, 북-중 양국 관계에 이정표적 의의"
▲17년간 900차례 비행한 기장이 '무면허'... 에어캐나다 '발각'